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25. 1.

제안자 : 국회운영위원장

주 문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감사원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감사를 요구한다.

1. 대통령 관저 공사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에 관한 감사
2. 대통령 관저 공사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
3. 대통령실의 공사 감독 책임 소재에 관한 감사
4. 대통령 관저 불법 신축 및 증축 의혹에 대한 감사
5. 대통령 관저 공사 수의계약의 적절성에 대한 감사
6. 대통령 관저 내 정자 시공업체의 정부 계약 254억 수주에 대한 감사

제안이유

1. 대통령 관저 공사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에 관한 감사

대통령 관저 공사를 맡은 '21그램' 등의 선정 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해당 업체가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의 전 시 후원사였다는 점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음. 관련 업체가 관저공사를 맡게 된 구체적 경위·업체 선정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성 여부·업체 선정 과정에서 경쟁입찰 여부 및 타 업체와의 비교평가 과정·업체 선정에 관여한 관계자들의 역할과 책임 등에 관한 감사가 필요함.

2. 대통령 관저 공사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

대통령 관저 공사 예산이 대폭 증액되는 등,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 전반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있음. 공사 과정에서 특정 건설사(현대건설)로부터 계약이 불분명한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의혹이 있고, 이는 경우에 따라서는 뇌물로 볼 여지도 있음. 또한, 방탄창호 시공 등과 관련 경호처가 원가 부풀리기 및 허위 견적서 작성을 통한 부당이득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예산 증액 및 집행 과정의 타당성과 절차의 적법성을 검토하기 위해, 예산 증액의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예산 증액 결정 과정의 적법성 및 타당성·증액된 예산의 세부 사용 내역·예산 증액과 집행 관련 결재 및 승인 절차의 적절성에 대한 감사가 필요함.

3. 대통령실의 공사 감독 책임 소재에 대한 감사

대통령 관저 공사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의 참여, 불법 하도급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제대로 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실시설계, 과업지시 등 기본적인 설계 서류 없이 공사가 진행되어, 업체별 과업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공사 수행과 감리 감독, 향후 책임 소재까지 불분명해지는 결과를 낳음. 따라서, 공사 감독 체계의 구조와 운영 실태·감독 책임자의 지정 및 역할 수행 여부·공사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대응 조치 여부 등에 대한 감사가 필요함.

4. 대통령 관저 불법 신축 및 증축 의혹에 대한 감사

대통령 관저 내 70m² 규모의 건물이 신축되었으나, 미등기 상태로, 공사비 출처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음. 아울러, 감사원이 발표한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감사 결과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등, 감사가 미흡했던 사실이 밝혀짐. 따라서, 신축공사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대통령 관저 내 드레스룸, 사우나 등에 대한 불법 증축 의혹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인허가 준수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 증축된 시설의 구체적인 내역과 용도·증축 과정에서의 관련 법규 및 인허가 절차 준수 여부·증축 결정 과정과 관련 책임자의 역할 등에 대한 감사가 필요함.

5. 대통령 관저 공사 수의계약의 적절성에 대한 감사

대통령 관저가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수의계약이 이루어졌으나, 그 필요성과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수의계약 결정 과정의 적법성·보안시설로 인한 수의계약의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수의계약 체결 시 관련 법규 준수 여부·유사 사례와의 비교를 통한 수의계약의 타당성 검토·대통령실의 공사 감독 책임에 관한 감사가 필요함.

6. 대통령 관저 내 정자 시공업체의 정부 계약 254억 수주에 대한 감사

광주 비엔날레에 출품돼 김건희 여사가 극찬했던 정자가 대통령 관저에 이전, 설치됐으나 대통령실은 해당 정자의 구입비용과 시공 관련 계약서류 제출을 거부함. 한편, 해당 정자의 시공업체인 원탑종합건설(원탑)은 정자 시공 후 254억원 규모의 법무부 발주 공사를 수주함. 해당 계약의 설계를 코바나콘텐츠 후원사인 ‘희림’이 맡아, 사실상 김건희 여사와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바, 법무부 공사 입찰의 전 과정과 정자 구입 과정 및 비용처리 등에 대한 감사가 필요함.